

IT서비스 3대장, AI·클라우드·디지털 팩토리 신사업 '격돌'

〈삼성SDS·SK C&C·LG CNS〉

신기술 적용·발굴 내부정비 강화
SI 대신 클라우드 기업으로 바뀌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 극대화”

대기업 IT서비스 '3대장' 삼성SDS·SK C&C·LG CNS가 신기술·신사업 적용 및 발굴을 위해 내부 정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DT) 등을 주요 육성 과제로 재설정했다.

6일 테크나비오(Technavio)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용 IT(System Integration·SI) 시장이 2017년 287억 6700만 달러(38조 3694억원)에서 2027년 1269억 9000만 달러(169조 379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6.53%로 추정된다.

테크나비오 측은 “다양한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중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변환·모니터링·해석 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빅데이터 및 분석 통합 서비스의 신속한 구현은 SI 시장 성장의 새로운 성장 동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국내 SI 시장 또한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KRG가 추정한 2023년 관련 시장은 39조 1910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성장했는데, 앞서 2020년 전년 대비 0.8% 성장했던 것과 비교할 때 괄목할 수준이다. KRG는 “팬데믹을 경험한 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확인됐고 특히 클라우드 구축이 DX를 위한 기반 인프라로 인식되며 업종을 망라하고 클라우드 구축 붐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 'SI' 대신 다른 이름으로

한국 SI기업 3대장 삼성SDS·SK C&C·LG CNS도 관련 대응을 위해 대대적인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SI' 명칭을 떼고 클라우드 기업 등으로 브랜



LG CNS D&A사업부 AI센터장 진요한 상무가 6대 생성형 AI 오픈링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LG CNS

드 재포지셔닝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SDS는 AI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사업 발굴 및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CES2024 당시 삼성SDS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한 기업의 Hyperautomation(하이퍼오토메이션) 혁신’을 주제로 삼성SDS 생성형 AI서비스 FabriX와 Brity Copilot의 실제 시연을 진행하며 시장 진출 계획을 설명했다. FabriX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생성형 AI 결합을 가속화하는 플랫폼이며 Brity Copilot은 지적 작업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이다.

삼성SDS는 매출 실적에서 여러 분야의 클라우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 기반의 CSP사업과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중심으로 한 MSP사업이 고르게 성장하며 매출 실적을 견인했다.

LG CNS는 DX전문기업으로 브랜드 리포지셔닝 후 엔터프라이즈 AI 전문 조직 'AI센터'를 신설했다.

LG CNS는 지난 1월 AI센터 출범식 'LG CNS AI DAY'를 열고 국내 생성형 AI 선도 기업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비전을 함께 선포했다. AI센터를 필두로 생성형 AI 서비스 사업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I센터는 기업 고객과 함께 생성형 AI 사업을 집중 발굴하는 '생성형 AI 사업단', 미래형

고객센터(FCC, Future Contact Center)를 포함해 차별화된 AI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AI사업담당', 언어·비전·데이터·AI엔지니어링 등 4대 AILAB으로 구성된 'AI연구소'를 한데 모았다.

진요한 LG CNS D&A사업부 AI센터장(상무)은 “LG CNS의 강점은 AI 전문조직과 데이터전문조직이 긴밀히 협업해 기업 고객을 위한 AI서비스를 고도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AI센터를 통해 기업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SK C&C는 디지털 컨설팅 자회사 애커튼파트너스와 함께 AI·클라우드·디지털 팩토리·ESG 등 4대 성장 사업과 디지털 컨설팅을 중심으로 대내외 전문가를 전진배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디지털 팩토리 시장 대응을 위해 'Digital Factory 사업단'을 신설하고 제조 경쟁력 혁신 전문가인 김민혁 사업단장(전 액센츄어 차이나 하이테크 매니징 디렉터·파트너)을 영입했다.

생성형 AI 및 디지털 ESG 분야에서 신사업 발굴을 위해 사내 인터스트리 및 DX 전문가들로 구성된 '에반젤리스트 TF 그룹'도 신설했다. 국내외 산업·고객에 맞춘 생성형 AI DX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디지털 ESG 사업 확산을 직접 지원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대한전선, 3800만달러 초고압 전력망 수주

대한전선이 해외서 새로운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

대한전선은 영국 북부 지역에 초고압 전력망을 공급하는 사업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글로벌 인프라 그룹 발포어 비티와 계약한 것, 전체 수주 규모는 3800만달러다.

MOU를 통해 2030년까지 2억8000만달러 이상 송배전망 프로젝트 입찰에 공동 참여하고 기술 공유와 제품 개발 협력도 약속했다.

이번 계약은 발포어 비티와 두번째

계약이다. 앞서 2700만달러 규모 400kV 초고압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계약한 바 있다. 양사는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유럽 뿐 아니라, 미국, 중동 등 인구 증가 및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성장에 따라 신규 전력망이 부족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영업력을 강화해 수주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갤S24 울트라, 美 컨슈머리포트 1위

미국 소비자들도 세계 최초 AI폰 갤럭시 S24 울트라에 감탄을 숨기지 못했다.

6일 미국 전문지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 S24 울트라가 최신 스마트폰 평가 1위를 차지했다.

컨슈머리포트는 비영리단체 소비자 연맹이 발간하는 월간지로, 따로 광고를 받지 않아 현지 소비자들에 신뢰가 매우 높은 매체로 알려져 있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총점 87점으로, 10개 평가 항목 중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성능과 내구성 등 하드웨어는 물론

편의성과 신뢰도 및 만족도까지 주관적인 평가에서도 '최고' 평가를 받았다.

경쟁 모델인 애플 아이폰 15 프로 맥스(86점)까지 제쳤다.

컨슈머리포트는 “더 밝은 디스플레이, 진보한 프로세서와 카메라, 향상된 배터리 사용시간 등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그 중 가장 매력적인 기능은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AI 편집' 등 '갤럭시 AI'”이라며 “갤럭시 AI는 실용적이며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용 기자



갤럭시 언팩 2024 체험존.

LS일렉-LG전자,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기술협력·지속적 정보 교류 등 협업 시너지 창출 방안·시장개척 계획 논의
얼라이언스로 전문성 확보 경쟁력 ↑

스마트팩토리 업계 리더 LS일렉트릭과 LG전자가 힘을 합친다.

LS일렉트릭과 LG전자 생산기술원은 5일 서울 LS용산타워에서 '스마트팩토리 사업 협력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상호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사는 MOU를 통해 ▲국/내외 스마트팩토리 시장 공동 프로모션 협력 ▲스마트팩토리 사업 공동 대응에 따른 기술협력 및 지속적인 정보 교류 ▲국내 및 해외 고객 대상 양사 보유 솔루션 및 역량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 등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폭넓은 협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LS일렉트릭과 LG전자는 스

마트팩토리를 구축하고 '세계 등대 공장'에 선정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앞으로 기술과 시장, 파트너사를 공유하는 얼라이언스로 활동할 예정이다.

양사는 MOU를 체결하면서 얼라이언스 구축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팩토리 사업 시너지 창출 방안과 시장 개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사가 함께하는 얼라이언스로 전문성을 지속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세계등대공장에 선정된 LS일렉트릭 청주사업장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결합을 통해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산업 사물인터넷(IIoT) 기반의 자동 설비 모델 변경 시스템 ▲자율주행 가능한 사내 물류 로봇 ▲AI 기반 실시간 자동

용접 시스템 ▲머신러닝 기반의 소음 진동 검사 시스템 등 스마트공장 핵심 기술이 대거 적용돼 있다.

LG전자 세계등대공장인 창원 및 테네시 공장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기술이 결합된 '버추얼 팩토리'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생산·라인·품질·설비 현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지능형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LS일렉트릭은 발전에서 송전, 그리고 수배전까지 아우르는 전력솔루션, 산업 설비의 핵심인 인버터와 PLC를 포함하는 산업자동화 솔루션,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ESS, 태양광 등 스마트에너지 솔루션을 기반으로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팩토리 전환은 물론 운영 과정에서의 에너지 절감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명실상부 국내 스마트팩토리 대표주자다. /김재용 기자 juk@

컴투스, 스타시드 명품 OST 조회수 20만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가 명품 OST 라인업으로 사전 인기몰이 중이다.

'스타시드'는 컴투스가 글로벌 판권을 확보하고 조이시티 자회사 모히또 게임즈가 개발 중인 AI 육성 어반 판타지 RPG다. 컴투스는 6일 최근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다양한 세계관 정보와 OST, 개발자 영상 등을 공개하며 예비 유저들과 적

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SNS 채널 오픈 초기부터 꾸준히 공개해온 테마곡 리스트가 인기다. 공식 OST는 일본의 유명 음악 유닛 Bess4(블레스4) 멤버 AKINO(아키노)가 참여해 화제를 모았으며, 테마별 BGM을 플레이리스트 포맷으로 엮은 영상은 감성 충만한 곡 퀄리티로 인기를 얻으며 댓글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정버거가 커버한 OST 영상은 업로드 당일 10만 조회수를 돌파, 약 일주일 만에 20만 회에 육박하는 등 반응이 뜨겁다. 정버거는 MZ세대 기반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 '이세계아이돌'의 멤버로, '스타시드' 첫 번째 공식 주제곡인 'Brave New World'의 커버에 참여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컴투스 신작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가 감성 충만 명품 BGM으로 화제. /컴투스